



양성평등

발행인: 부귀중학교장
편집인: 보건교사
발행처: 부귀중 보건실
보건실 070-4278-5602

우) 55416 진안군 부귀면 상거석길 14-7 교무실 063)432-8546 FAX 063)433-4885

가. 양성평등이란?

▷ 남자와 여자의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가 성별에 따라 차별이 없음을 뜻합니다.

나. 성 불평등, 무엇이 문제일까?

여성의 일 따로, 남성의 일 따로?	성별 고정관념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적 대우
 <p>통계청 [2016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남자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50분, 여자는 4시간 18분이었습니다.</p>	 <p>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이중적 기준은 사람들 각각의 특별한 능력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라는 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장에서의 주요 업무는 남성이 맡게 하는 성차별적 업무 배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p>	 <p>남성 대비 여성 월평균 임금 우리나라는 OECD가 성별 임금 격차 통계를 발표한 이후 계속해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업하더라도 여성은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힘들고, 여성들의 일자리는 남성에게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p>

다. 성폭력 피해를 둘러싼 성차별적 상황들

성차별적 문화	성차별적 법과 제도
<p>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냐”는 의심과 불신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다가옵니다. 폭력을 동조·지지하는 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문제의식 없이 더욱 확대됩니다.</p>	<p>더 큰 문제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할 법과 정책, 수사기관이 때로 잘못된 통념을 수용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많은 가해자들이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곤 합니다.</p>

라.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

정부는 학교·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창구를 운영합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폭력 허용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개개인이 인식 전환을 통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